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제조업부문 10월 이후 감소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87.6로 전년동월대비 26.0% 감소 ○ 서울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 설명절 및 환율효과로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대형마트 각각 18.0% 증가 - 판매액 증가 원인은 설 명절 이동과 환율 효과인 것으로 예측됨 ○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9%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111.2로 전월대비 0.5% 증가하였으나, 전도시 평균(0.7%)보다 낮게 상승 - 전월에 비하여 교통, 교양·오락 부문과 통신은 하락,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 특히 휘발유, 금반지 등은 모두 상승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7%p 감소한 60.1%로 나타남 ○ 서울의 취업자 수 2008년 3월 이후 감소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8명(-2.4%) 감소한 4,743천명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61천명(-2.2%), 여자는 57천명(-2.8%)이 각각 감소 - 청년층의 취업자 수 지속적 감소 추세, 반면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증가 추세 ○ 서울의 실업률 전국대비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서울의 실업률은 4.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남자는 0.9%p 상승, 여자는 0.3%p 하락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626,360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1.6% 감소 - 공공부문은 아파트 신축공사 및 재개발공사 발주 증가로 인한 전년대비 증가, 민간 부문은 전년에는 주택재개발 및 사무실 공사의 발주가 많았으나, 금년에는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감소 ○ 2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0.1%)에는 지난달(-0.7%)보다 하락폭이 다소 완화한 가운데 강남지역은 5개월 만에 반등 - 강북지역은 0.3% 하락, 강남지역은 전월에 비해 0.1% 상승 ○ 2월 기준 강남의 주택전세가격 5개월만에 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하락 폭이 축소된 가운데 강남지역이 5개월만에 크게 반등 - 강북지역은 0.3% 하락하여 약세가 지속되었고, 강남지역은 0.3% 상승하여 반등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98조 1,09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2% 증가 ○ 1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195개로 전년동월대비 36.3%(680개) 감소 ○ 1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104개로 전월보다 13.3%(16개) 감소 ○ 2월 서울시 수입과 수출 감소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서울의 수출은 22.4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3.3% 감소. 수출 1순위는 금은 및 백금 다음은 무선통신기기, 편직물, 컴퓨터 등의 순 - 2월 서울의 수입은 51.5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0.3%의 감소율을 기록.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컴퓨터, 석유제품 등의 순

| 생 · 산 |

1월 산업생산 -27.2%로 10월 이후 큰 폭 하락

■ 1월 산업생산 지난달에 이어 경기침체 지속

- 전년동월대비로는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는 증가한 반면,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에서 부진하여 25.6%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부진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0.3% 증가하였다,
- 전년동월대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진하여 0.9%감소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성장세 심화

- 1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84.4으로 전년동월대비 27.2% 감소
- 업종별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의복 및 모피, 전기장비, 기계장비 제조업 등에서 감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 및 경공업부문 감소세 지속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46.8% 감소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7.2% 감소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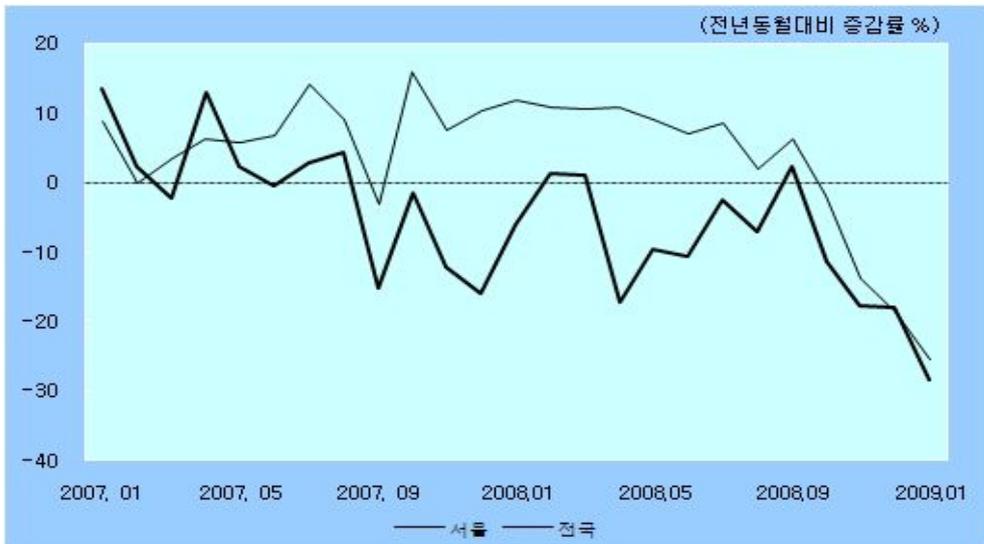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월	9월	10월	11월	12월p	1월p	
전 년 동 월 대 비	전국	11.7 (1.6)	6.3 (0.7)	-1.9 (-2.5)	-13.8 (-10.1)	-18.7 (-9.6)	-25.6 (1.3)
	서울 (제조업)	-5.9 (0.1)	2.4 (9.5)	-11.2 (-0.3)	-17.7 (-14.0)	-17.8 (-2.2)	-27.2 (-12.7)
	중공업	-22.3 (-10.6)	0.6 (12.9)	-24.7 (-10.3)	-30.5 (-16.5)	-29.8 (4.8)	-46.8 (-32.3)
	경공업	7.5 (7.7)	3.4 (7.5)	-2.0 (5.9)	-9.5 (-12.7)	-9.1 (-5.6)	-17.2 (-1.9)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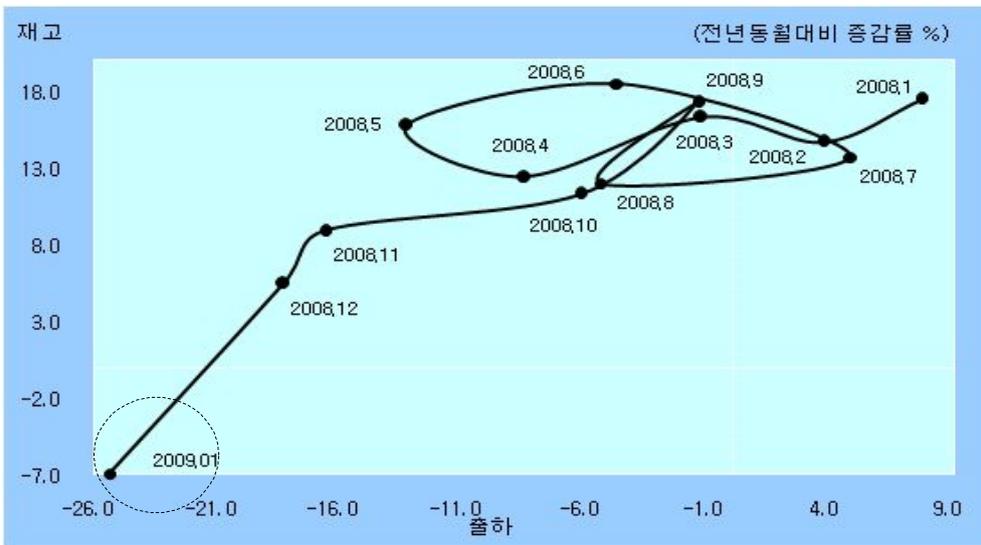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1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지역의 1월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49.7로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 업종별로는 식료품 제조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기계 장비 제조업 등에서 감소
 - 출하 및 재고 모두 전년동월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 경기침체 심화로 9월 이후 빠른 속도로 재고조정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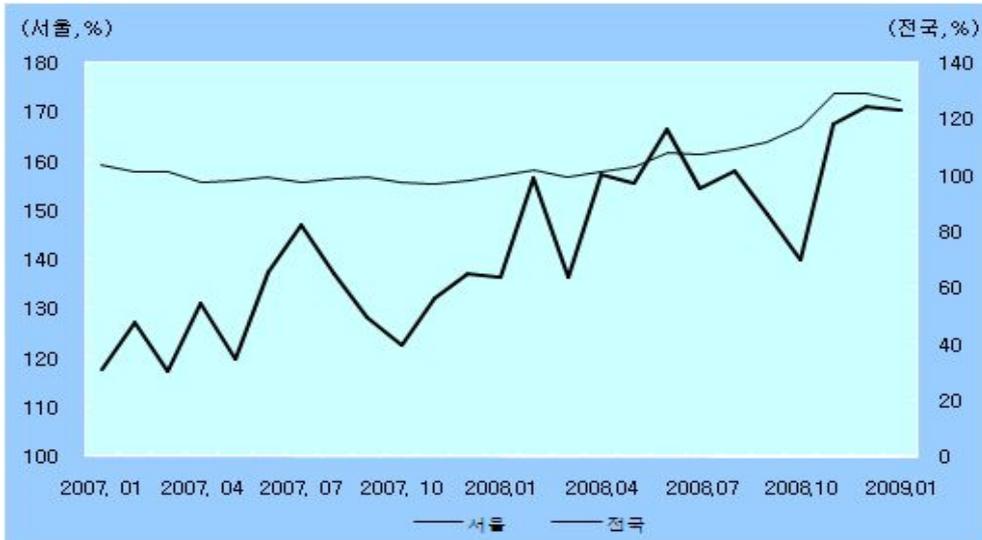
- 1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26.8%로 전월대비 2.6%p 감소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70.3%로 전월대비 0.9%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30.3%p 증가한 182.8%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16.7%p 감소한 159.1%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1월	9월	10월	11월	12월p	1월p	
재고율	전국	99.8	112.1	117.4	128.9	129.4	126.8	-2.6
	서울	136.4	149.1	140.1	167.6	171.2	170.3	-0.9
	중공업	135.7	140.2	155.6	198.9	152.5	182.8	30.3
	경공업	136.2	153.7	131.2	152	175.8	159.1	-16.7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1월 서울 대형소매점 설 명절과 환율효과로 판매액 증가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는 증가한 반면, 승용차 등의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에서는 감소함

■ 서울 대형소매점 설 명절 이동 및 환율효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6,308억으로 전국대비 34.1%의 구성비를 보임
- 백화점의 경우 설 명절 이동 및 환율 효과로 외국인 구매 증가하여 신발, 가방, 운동오락용품, 주방용품, 음식료품 판매액 증가로 18.0% 증가
-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로는 설명절 이동으로 인해 화장품, 주방용품, 음식료품 판매액 상승으로 18.0% 증가
- 주요 판매액 증가 원인은 설 명절 이동과 환율 효과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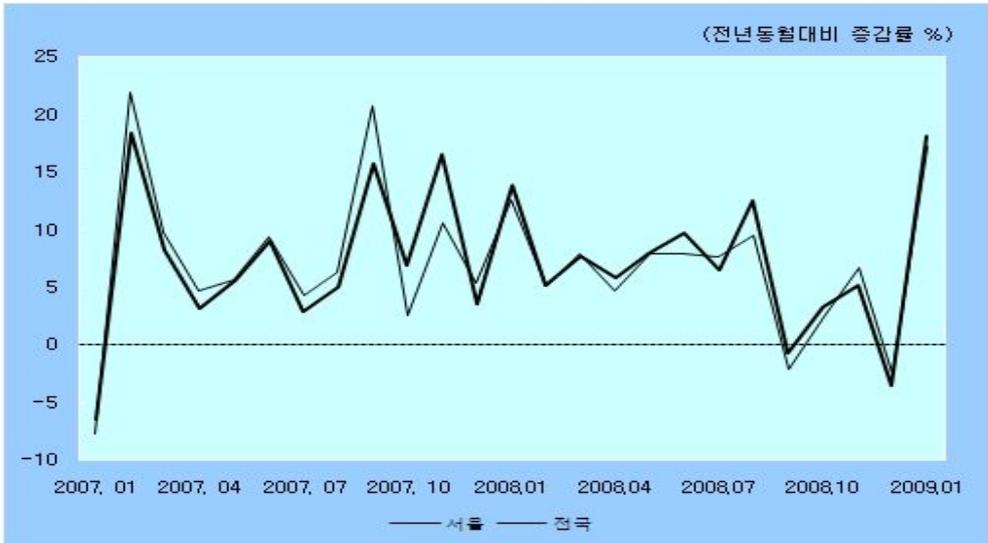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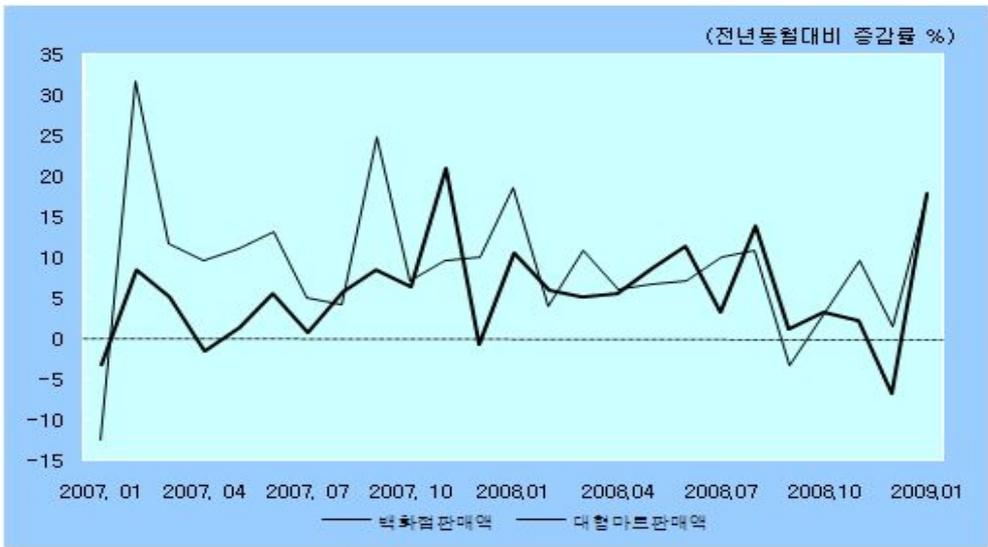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1월	9월	10월	11월	12월p	1월p	
판매액	전국	4076.2 (12.5)	4324.2 (-2.2)	4124.5 (2.4)	4400.8 (6.7)	4404.3 (-2.6)	4776.5 (17.2)
	서울	1382.1 (13.8)	1418.9 (-0.8)	1427.4 (3.2)	1535.3 (5.1)	1519.2 (-3.5)	1630.8 (18.0)
	백화점	801.8 (10.6)	784.2 (1.4)	861.1 (3.3)	930.6 (2.4)	898.0 (-6.6)	946.3 (18.0)
	대형마트 (할인점)	580.3 (18.5)	634.6 (-3.4)	566.2 (3.2)	604.6 (9.5)	621.2 (1.4)	684.4 (18.0)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2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 전월에 비해 0.5% 하락한 교양오락부문과 전월대비 보험인 통신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이 모두 상승
- 특히 휘발유 10.9% 상승, 금반지 14.6%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교통부문 2.9%, 기타잡비부문이 3.6% 각각 상승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로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9% 각각 상승
- 주요도시의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는 서울이 전도시 평균(0.7%)보다 낮게 상승한 반면, 부산, 경기, 전북, 제주는 전도시 평균과 같고,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그밖의 도시는 전도시 평균보다 높게 상승함
- 전월에 비해 0.6% 하락한 교양·오락 부문과 통신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 특히 휘발유 9.7% 상승, 금반지 14.4%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교통 부문 2.0%, 기타잡비 부문이 3.7% 각각 상승

■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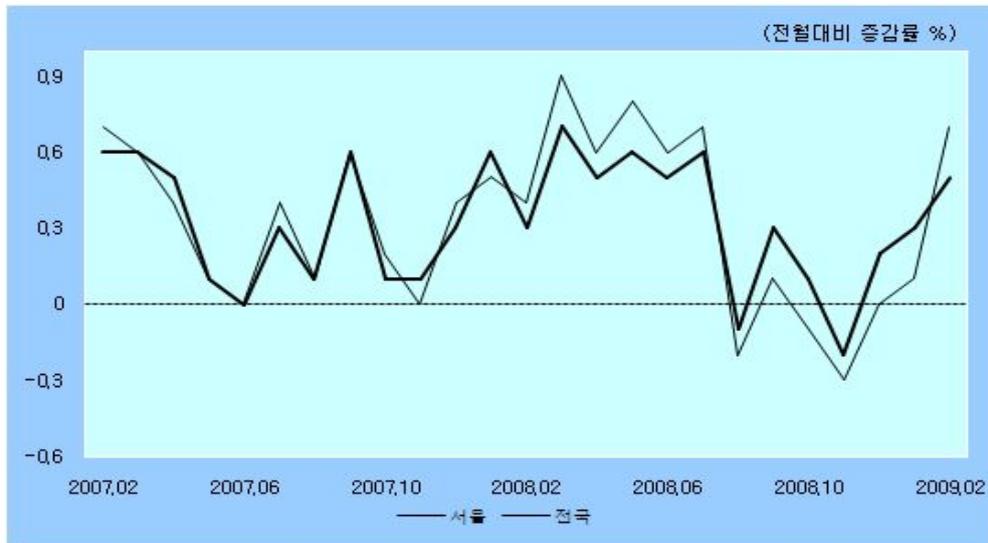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전국:0.8%), 전년동월대비 3.2%(전국:3.3%)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6%(전국:1.7%) 전년동월대비 2.1%(전국:1.4%) 각각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비	전국	0.4 (3.6)	0.1 (5.1)	-0.1 (4.8)	-0.3 (4.5)	0.0 (4.1)	0.1 (3.7)	0.7 (4.1)	
	서울	0.3 (3.5)	0.3 (4.5)	0.1 (4.4)	-0.2 (4.2)	0.2 (4.1)	0.3 (3.7)	0.5 (3.9)	
	상품 성질별	상품	0.1 (3.8)	0.4 (6.4)	-0.1 (6.0)	-1.1 (4.9)	0.3 (4.6)	0.5 (4.4)	1.2 (5.6)
		서비스	0.4 (3.2)	0.1 (3.4)	0.2 (3.6)	0.4 (3.8)	0.1 (3.7)	0.1 (3.4)	0.2 (3.2)
	생활물가	0.3 (4.4)	0.1 (4.6)	-0.3 (4.1)	-0.4 (3.6)	-0.4 (2.9)	0.4 (2.9)	0.5 (3.2)	
	신선식품	-0.2 (-2.5)	-1.7 (-12.7)	-2.0 (-15.6)	-2.0 (-11.7)	3.4 (-7.9)	7.3 (0.3)	1.6 (2.1)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세 지속

- 전국 2월 15세 이상인구는 39,90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3천명(1.2%)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3,6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명(-0.2%)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975천명으로 70천명(0.5%)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9,692천명으로 106천명(-1.1%)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하였음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경제활동인구는 4,9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1천명(-2.0%)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1.7%p 하락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7 (-0.1)	0.5 (0.3)	0.4 (0.5)	0.4 (-0.1)	0.2 (-2.20)	-0.1 (-1.3)	-0.2 (-0.2)
	서울	0.2 (-0.7)	-1.3 (-0.7)	-1.7 (-0.2)	-1.8 (-0.1)	-1.4 (-0.8)	-1.4 (0.1)	-2.0 (-1.3)
	남자	-0.3 (-0.5)	-0.9 (-0.9)	-0.9 (-0.2)	-1 (0.2)	-1.1 (-1.1)	-0.8 (0.3)	-1.2 (-0.9)
	여자	0.9 (-0.9)	-1.7 (-0.4)	-2.7 (-0.2)	-2.8 (-0.3)	-2.0 (-0.5)	-2.3 (-0.3)	-3.1 (-1.7)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0.1	61.6	61.9	61.8	60.4	59.5	59.3
	서울	61.8	61.7	61.6	61.5	60.9	60.9	60.1
	남자	73.2	73.4	73.2	73.2	72.4	72.5	71.8
	여자	50.9	50.7	50.6	50.4	50.1	49.9	49.1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업·자 |

2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

- 전국의 2월 취업자 수 30대 이하에서 감소, 40대 이상에서 증가
 - 2월 취업자는 22,7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2천명(-0.6%)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3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0.0%) 감소하였고, 여자는 9,375천명으로 139천명(-1.5%)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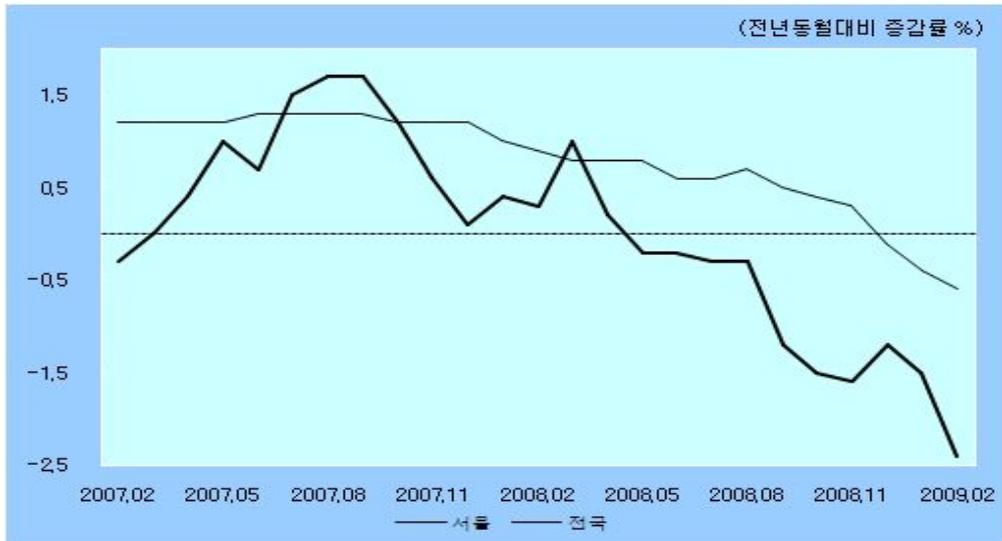
- 서울의 2월 취업자 수 2008년 3월 이후 감소세 지속
 - 2월 취업자는 4,74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8천명(-2.4%)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25천명, 여자는 2,0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61천명(-2.2%), 여자는 57천명(-2.8%)이 각각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1천명(47.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91천명(5.3%)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건설업 62천명(-14.8%), 제조업 86천명(-14.4%), 도소매음식숙박업 45천명(-3.3%),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5천명(-2.0%)은 각각 감소
 - 2008년 9월 이후 청년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반면 고령층 취업자 수는 증가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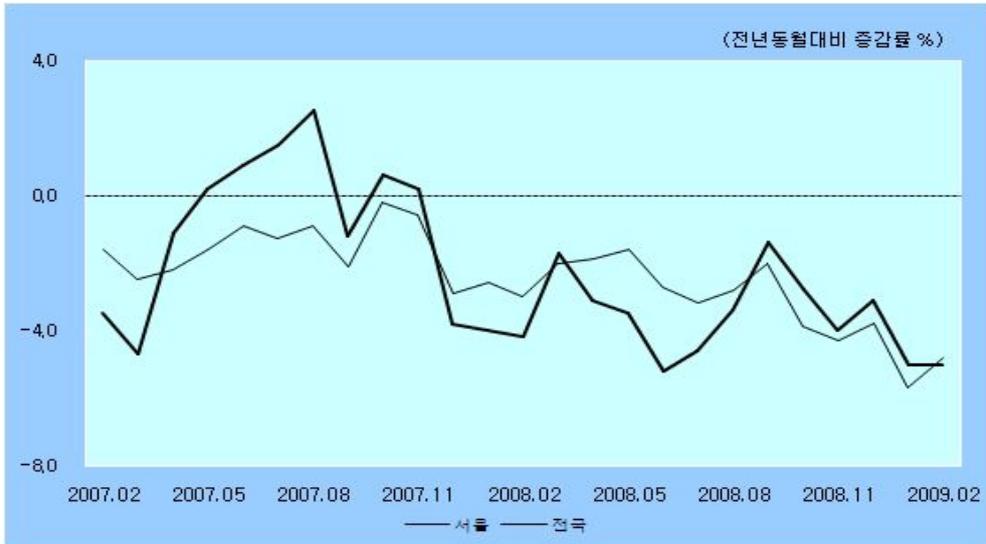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취업자	전국	0.9 (-0.3)	0.5 (0.5)	0.4 (0.5)	0.3 (-0.1)	-0.1 (-2.4)	-0.4 (-1.7)	-0.6 (-0.5)
	서울	0.3 (-1.0)	-1.2 (-0.3)	-1.5 (-0.2)	-1.6 (-0.2)	-1.2 (-0.9)	-1.5 (-0.3)	-2.4 (-2.0)
	남자	-0.3 (-0.9)	-0.5 (-0.7)	-0.8 (-0.3)	-1.4 (-0.3)	-1.5 (-1.3)	-1.4 (-0.1)	-2.2 (-1.7)
	여자	1.1 (-1.1)	-2.1 (0.4)	-2.3 (-0.1)	-1.9 (-0.1)	-0.9 (-0.4)	-1.6 (-0.6)	-2.8 (-2.3)
청년층 취업자	전국	-3.0 (-4.2)	-2.0 (-1.4)	-3.9 (-2.8)	-4.3 (-4.0)	-3.8 (-3.1)	-5.7 (-5.0)	-4.8 (-5.0)
	서울	-4.0 (3.5)	-3.4 (-1.1)	-1.4 (-0.9)	-2.8 (-2.0)	-4.0 (-0.2)	-3.1 (-2.2)	-5.0 (1.6)
고령층 취업자	전국	2.3 (0.4)	2.1 (2.1)	2.1 (0.4)	3.3 (-0.9)	1.3 (-8.4)	1.3 (-4.3)	1.6 (0.7)
	서울	0.1 (-1.7)	-3.4 (0.7)	-2.0 (-0.7)	-1.6 (-1.2)	-1.0 (-2.2)	0.1 (0.1)	0.4 (-1.4)
	55-59세	8.3 (0.0)	3.2 (-0.3)	0.4 (-1.2)	2.3 (0.5)	1.1 (-2.0)	4.0 (2.4)	3.4 (-0.6)
	60세 이상	-5.9 (-3.1)	-8.0 (1.7)	-3.8 (-0.3)	-4.6 (-2.5)	-2.5 (-2.5)	-3.1 (-1.8)	-2.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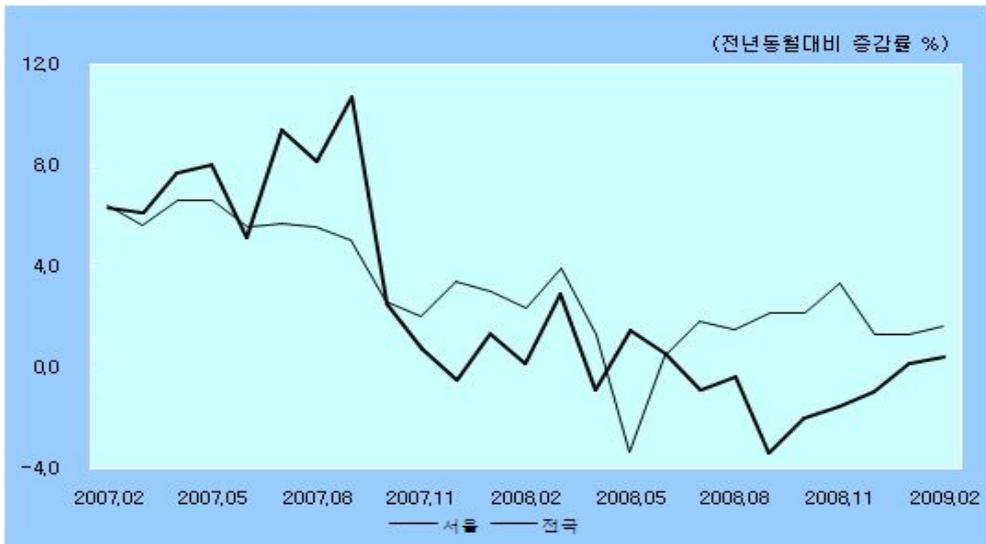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사무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 증가, 반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는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29천명(3.7%),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4천명(1.7%)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40천명(-10.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1천명(-2.6%), 서비스·판매종사자 30천명(-2.3%)은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각각 감소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187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5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78천명(-6.1%), 임금근로자는 40천명(-1.1%)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58천명(-5.3%), 무급가족종사자는 20천명(-10.6%)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79천명(4.2%)이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102천명(-8.3%), 일용근로자는 18천명(-3.6%)이 각각 감소

- 일시휴직자 및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각각 14.2%, 2.6%감소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명(-4.1%),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1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8천명(-2.6%)이 각각 감소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천명(4.0%)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는 29천명(-7.8%)이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천명(-0.5%), 54시간이상 취업자는 94천명(-6.3%)이 각각 감소
 - 일시휴직자는 10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14.2%)이 증가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산업별	제조업	-9.0 (-4.8)	-6.8 (8.4)	-13.0 (-4.3)	-14.4 (-10.6)	-15.3 (-0.7)	-13.5 (2.9)	-14.4 (-5.8)
	SOC 및 기타서비스업	1.8 (-0.4)	0.0 (-1.4)	0.4 (0.4)	0.2 (1.2)	0.8 (-0.9)	0.3 (-0.7)	-0.7 (-1.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2 (-0.8)	0.6 (0.3)	1.0 (1.5)	3.2 (1.6)	4.2 (-0.6)	3.7 (-1.8)	5.3 (0.8)
	도소매·음식숙박	0.6 (-0.1)	0.9 (-3.5)	2.0 (-0.4)	-1.1 (-0.4)	-1.5 (1.5)	-1.9 (-1.1)	-3.3 (-1.5)
	전기·운수·통신·금융	4.6 (-2.0)	-2.6 (-3.6)	-1.4 (1.3)	-3.1 (2.8)	-1.0 (-2.0)	-0.6 (3.4)	-2.0 (-3.4)
	건설업	3.7 (3.0)	-0.6 (1.9)	-4.0 (-3.5)	-2.6 (2.0)	-2.4 (-7.8)	-4.5 (-1.5)	-14.8 (-8.1)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8.2 (-2.6)	3.8 (0.7)	2.2 (-2.2)	4.6 (1.4)	3.6 (-0.1)	-2.2 (-0.3)	1.7 (1.2)
	기능·기계작·조립·단종사자	-6.0 (-1.9)	-5.6 (0.4)	-6.4 (0.2)	-7.3 (-3.7)	-7.1 (-3.2)	-7.3 (-1.7)	-10.3 (-5.1)
	서비스·판매종사자	1.1 (0.1)	-0.5 (-3.5)	0.1 (1.0)	-2.8 (2.0)	-1.2 (-0.7)	0.6 (0.4)	-2.3 (-2.8)
	사무종사자	-1.8 (1.7)	-1.0 (2.4)	-0.9 (0.7)	0.1 (-0.5)	0.9 (1.4)	6.7 (0.8)	3.7 (-1.2)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4 (-1.5)	0.0 (1.1)	-0.6 (-0.3)	0.0 (-0.1)	0.3 (-0.7)	-0.2 (0.1)	-1.1 (-2.4)
	비임금근로자	0.2 (0.4)	-4.4 (-4.1)	-3.8 (0.2)	-6.1 (-0.5)	-5.5 (-1.5)	-5.1 (-1.5)	-6.1 (-0.7)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업·률 |

2월 서울의 실업률 전국대비 1.0%p 높음

- **전국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그 중 여성 실업률 큰 폭으로 증가**
 - 2월 실업자는 9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6천명(12.9%)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0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천명(13.5%) 증가하였고, 여자는 31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명(11.9%) 증가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4%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여자는 3.3%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계절조정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보합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40대에서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
 - 실업률은 40대에서 감소하였고, 60세 이상에서는 보합, 그 외 연령층에서는 상승

- **서울의 실업률 4.9%로 전국의 실업률에 비해 1.0%p 높음**
 - 2월 실업자는 24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천명(7.3%)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명(17.4%)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74천명으로 9천명(-10.6%)이 감소
 - 실업률은 4.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9%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하였고, 여자는 3.5%로 0.3%p 하락
 -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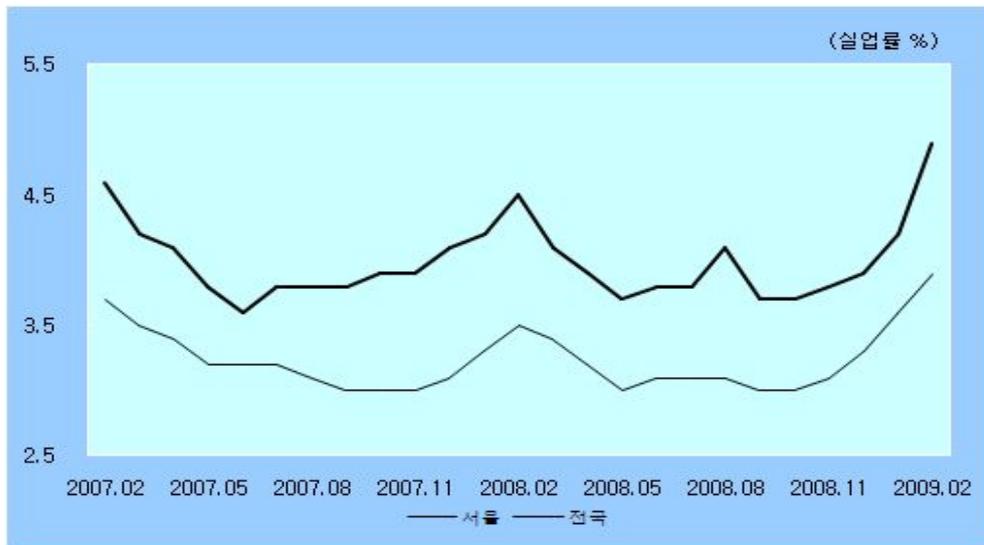
- **서울의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9년 2월 고용률은 57.2%로 전년동월 대비 1.8%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7.5%로 전년동월대비 2.1%p, 여자는 47.3%로 1.7%p 각각 하락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실업률	전국	3.5	3.0	3.0	3.1	3.3	3.6	3.9	
	서울	4.5	3.7	3.7	3.8	3.9	4.2	4.9	
	성별	남자	5.0	4.1	4.2	4.6	4.8	5.2	5.9
		여자	3.8	3.1	3.0	2.8	2.6	2.9	3.5
고용률	전국	58.0	59.8	60.0	59.9	58.4	57.3	57.0	
	서울	59.0	59.5	59.3	59.1	58.6	58.3	57.2	
	성별	남자	69.6	70.3	70.1	69.9	68.9	68.7	67.5
		여자	49.0	49.2	49.1	49.0	48.8	48.5	47.3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2009년 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크게 감소(전년동월 대비)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5,333,006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0%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626,360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1.6%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1.7%를 차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에서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51.7%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는 81.4% 감소
- 공공부문은 아파트 신축공사 및 재개발공사 발주 증가로 인한 전년대비 증가, 민간부문은 전년에는 주택재개발 및 사무실 공사의 발주가 많았으나, 금년에는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감소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감소(전년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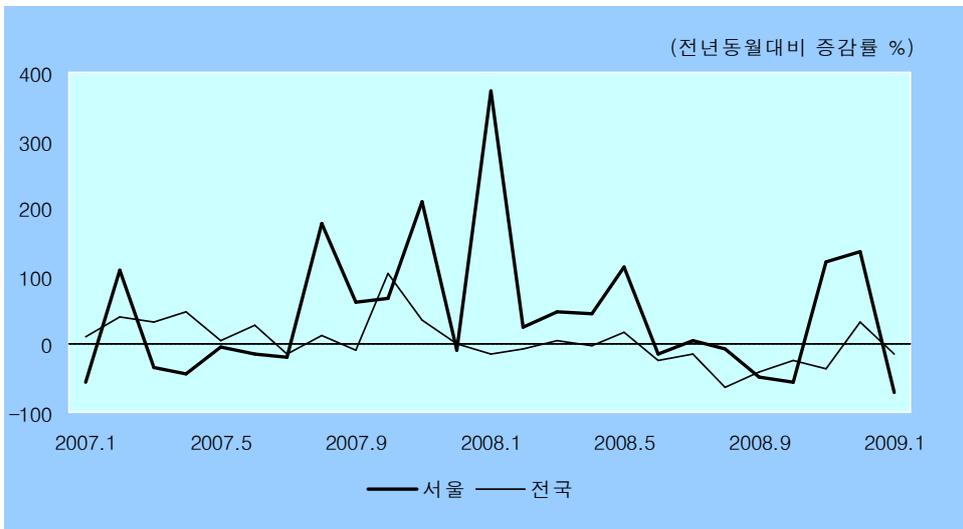
- 2009년 1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1,271.6천㎡로 전년동월 대비 17.1% 감소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55.7% 감소, 연립주택은 97.5% 감소, 아파트는 59.1% 감소.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85.3% 감소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상업 부문이 5.9% 감소, 공업부문이 74.5% 감소, 문교 및 사회 부문이 10.1% 증가, 기타 부문이 91.9% 감소.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0.8%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8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6,275	5,436	8,131	7,954	21,721	5,333	-15.0	-75.4	
서울	2,205	1,085	926	3,014	3,736	626	-71.6	-83.2	
발주 자별	공공	175	75	573	596	678	266	51.7	-60.8
	민간	1,934	983	229	2,307	3,042	359	-81.4	-88.2
공종 별	건축	2,062	1,013	874	2,855	3,313	520	-74.8	-84.3
	토목	143	61	50	158	414	104	-26.8	-74.9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8년	2008년					2009년	전년 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서울	1,534.80	1,441.2	1,912.4	1,978.9	2,827.7	1,271.6	-17.1	-55.0	
주거용	소계	130.6	68.5	38.4	29.7	169.2	19.2	-85.3	-88.7
	단독	7.9	10.0	13.3	8.8	7.4	3.5	-55.7	-52.7
	연립	89.7	1.0	7.2	2.8	10.7	2.2	-97.5	-79.4
	아파트	33	57.5	17.9	18.1	151.1	13.5	-59.1	-91.1
비주거용	소계	1,404.20	1,372.7	1,874.0	1,949.2	2,658.5	1,252.4	-10.8	-52.9
	상업	872.2	1,048.0	1,367.4	1,175.1	1,482.0	820.8	-5.9	-44.6
	공업	116.9	27.5	34.7	207.0	326.3	29.8	-74.5	-90.9
	문교/사회	361	289.5	462.8	563.2	797.5	397.4	10.1	-50.2
	기타	54.1	7.7	9.1	3.9	52.7	4.4	-91.9	-91.7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2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 완화

■ 2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 축소

- 2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장기간 하락에 따른 가격메리트가 구매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낙폭이 컸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고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월대비 하락폭이 축소되며 진정되는 모습
- 전국이 -0.3%, 서울이 -0.1%, 서울 강남지역은 0.1% 상승세를 보여 5개월만에 반등하고 하락 지역의 수가 감소한 가운데 광역시(-0.2%), 기타지방(-0.2%)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완화

■ 2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 축소

- 강북지역(-0.3%)은 노원구(-1.2%) 등의 하락 폭이 확대되는 약세가 지속된 반면, 강남지역(0.1%)은 한강변 초고층 허용, 잠실 롯데월드 건립호재,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기존 물량들이 빠르게 소진되며 강남구(0.7%), 강동구(0.5%), 송파구(0.4%) 등이 반등하고, 양천구(0.5%)는 투기지역 해제와 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여건 개선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게 반등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월	2월			
전국	97.6	99.4	99.2	1.7	-0.3	
서울	96.5	99.3	99.2	2.8	-0.1	
아파트	97.9	99.1	98.9	1.0	-0.2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3.9	99.5	99.2	5.6	-0.3
	강남	99.4	99.1	99.2	-0.1	0.1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하락지역은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 강북 지역(-0.3%)에서는 노원구(-1.2%)가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도봉구(-0.4%)와 성북구(-0.4%)도 하락세 지속
- 강북지역에서 상승한 지역은 중구(0.3%)뿐이고, 은평구(0.0%)와 종로구(0.0%)는 보합세를 나타냄

■ **강남지역에서는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반등**

- 강남 지역(0.1%)에서 강남구(0.7%), 강동구(0.5%), 송파구(0.4%) 등이 반등하고, 양천구(0.5%)는 투기지역 해제와 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여건 개선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게 반등
- 구로구(-0.4%), 동작구(-0.4%), 서초구(-0.4%)는 지속적으로 하락세

■ **2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다소 반등**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2월 27일 기준)은 1,741.3만원으로 전월(1,740.8만원)보다 소폭 상승하여 반등세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152만원), 용산구(2,533만원), 서초구(2,518만원), 송파구(2,312만원), 양천구(1,833만원), 광진구(1,773만원)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미달하는 구는 금천구(1,012만원), 은평구(1,075만원), 중랑구(1,122만원), 강북구(1,124만원) 등 순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2월 강남의 주택전세가격 5개월만에 반등

■ 2월 기준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하락지역 크게 감소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0.2%)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띠면서 하락지역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과천, 송파구, 강동구 등 지역이 급반등하며 낙폭이 크게 축소
- 수도권(-0.2%)의 하락 폭이 축소되고, 광역시(-0.3%)와 기타지방(-0.1%)도 하락세가 완화된 가운데 서울 강남지역(0.3%)이 5개월만에 반등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이 각각 -0.3%, -0.1%, -0.2%로 주택유형 전반에 걸쳐 하락폭이 크게 축소
- 전국의 주택규모별 전세가격은 대형이 -0.4%, 중형과 소형이 각각 -0.2%로 하락폭이 크게 축소

■ 2월 기준 강남지역 큰 폭 반등

- 강남지역(0.3%)에서는 송파구(2.3%)가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메리트가 부각되고 신학기 이주수요가 맞물리면서 7개월만에 큰 폭으로 반등하였고, 강동구(2.0%)도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입주 마무리에 따른 저가 전세물량 소진으로 7개월간의 하락세를 접고 반등
- 강북지역(-0.3%)은 약세가 지속된 가운데 광진구(0.6%)가 잠실 물량 소진과 대학가 수요 증가 등 봄철 이사수요로 크게 반등

■ 주요 상승지역은 송파구, 강동구, 중구, 광진구

- 강남지역에서는 송파구(2.3%)와 강동구(2.0%)로 크게 반등하였고, 구로구(-0.7%)와 동작구(-0.4%)는 전월대비 하락세 지속
- 강북지역에서는 중구(0.6%), 광진구(0.6%), 종로구(0.5%) 등 지역이 상승하였고, 용산구(-0.7%), 노원구(-0.7%), 은평구(-0.6%) 등 지역은 하락세 지속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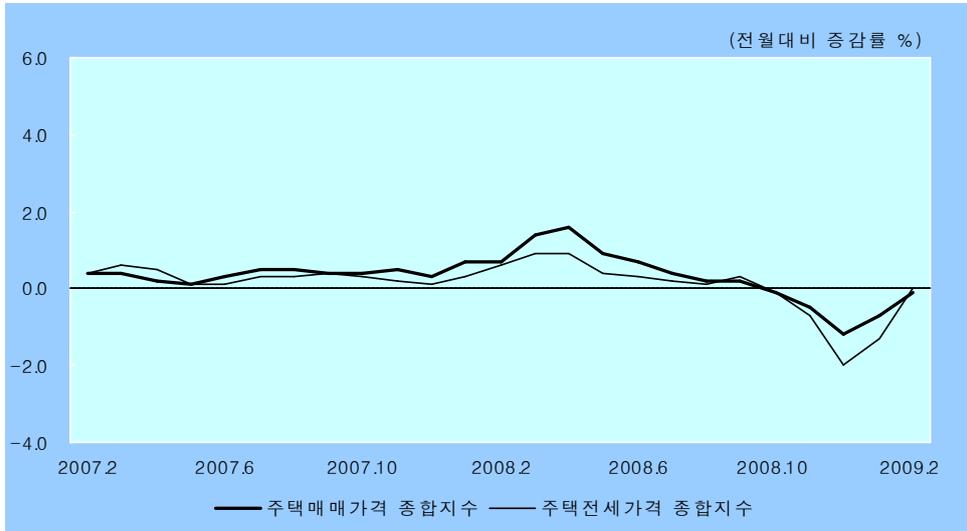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월	2월		
전국	98.8	99.1	98.8	0.1	-0.2
서울	99.7	98.7	98.7	-1.0	0.0
아파트	102.3	98.3	98.5	-3.7	0.2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7.9	98.9	98.7	0.8	-0.3
강남	101.7	98.4	98.8	-2.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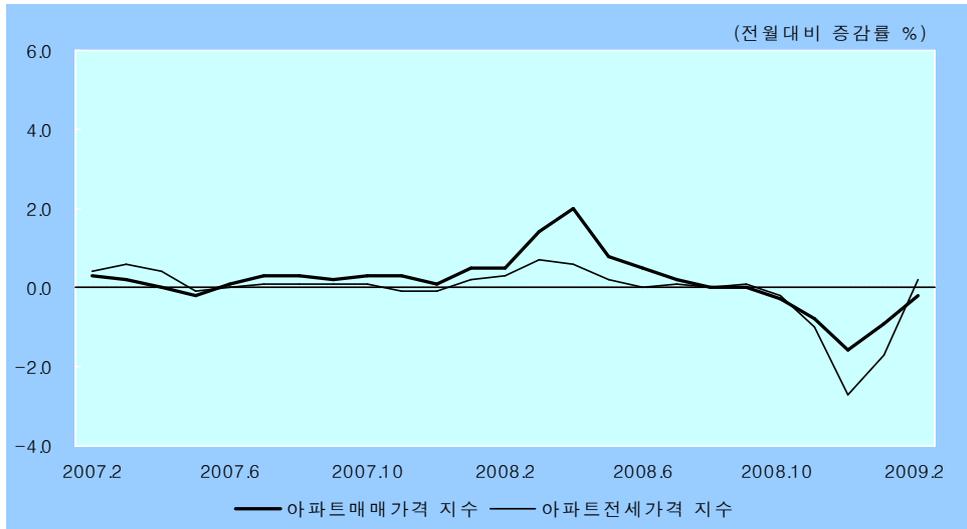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하락세 유지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8년 5월의 39.8%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작년 12월에는 38.7%를 기록하였고 2009년 1월에는 38.2%로 하락 폭이 확대되었으며 2월에는 소폭 상승하여 38.3%로 나타남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1월 전국 평균 52.3%보다 14.0%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대비 소폭 축소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1.0%, 강남 36.0%로 2월에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0%p이며,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단기시장금리 큰 폭 하락

금리

- 단기시장금리 큰 폭 하락
 - 단기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2.12일 -50bp) 및 풍부한 시중유동성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은행 여신금리도 하락세 지속
 - 장기시장금리는 국고채금리와 회사채금리가 엇갈린 움직임
 - 국고채(3년)금리는 추경편성 등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등으로 2월 이후 변동성이 확대(09.1월 3.4~3.6% → 2월 3.6~4.0%)
- 시장금리 및 은행대출금리 크게 하락
 - 2월 들어서도 일련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시장금리 및 은행대출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직접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크게 개선
 - CD·체 금리가 사상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신규취급 은행대출금리도 5%대로 낮아짐

주가

- 2월 KOSPI 지수 하락이후 다소 반등
 - KOSPI 지수는 원/달러 환율 불안 및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우려, 실물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하락(3.2일, 1,019p)하다가 3.3일 이후 다소 반등
(08.10.24일 939p → 12월말 1,124p → 09.1월말 1,162p → 2월말 1,063p → 3.2일 1,019p → 3.10일 1,092p)
- 2월중 외국인 투자자 2월 중순이후 순매도로 전환
 - 외국인 투자자 지난달 순매수 지속하다가 2월 중순 이후 순매도 전환
· 외 국 인: 10월 -4.9조원 → 11월 -1.9조원 → 12월 +0.8조원 → 09.1월 +0.7조원 → 2.1일~3.10일 -1.8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금 리	국고채(3년)	4.97	4.47	4.87	3.97	3.44	3.78	0.34
	CD(91일물)	5.18	5.98	5.45	4.68	3.22	2.70	-0.52
	콜금리(1일)	4.97	4.88	4.00	3.27	2.43	2.06	-0.37
	장단기 금리차 ¹⁾	-0.21	-1.51	-0.58	-0.71	0.22	1.08	0.86
주 가	KOSPI	1,689.50	1,201.70	1,073.95	1,114.90	1,156.37	1,139.75	-16.62
	KOSDAQ	647.4	348.31	310.48	324.98	355.10	377.44	22.34
환율 (₩/US\$)		944.7	1326.85	1400.81	1368.8	1354.68	1440.19	85.51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2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달 계절적 요인(설 상여금 지급) 등에 의한 감소로부터 2.8조 원 증가로 전환
(12월 +1.6조원 → 09.1월 -1.7조원 → 09.2월 +2.8조원)
-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06.11월(+4.2조원) 이후 최대 규모인 3.3조원 증가. 주택자금수요 외에 개인의 생활안정·사업자금 수요가 증가한데도 기인
- 한편,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여타대출은 소득세 환급 및 08.2학기 학자금대출권 양도 등으로 전월에 이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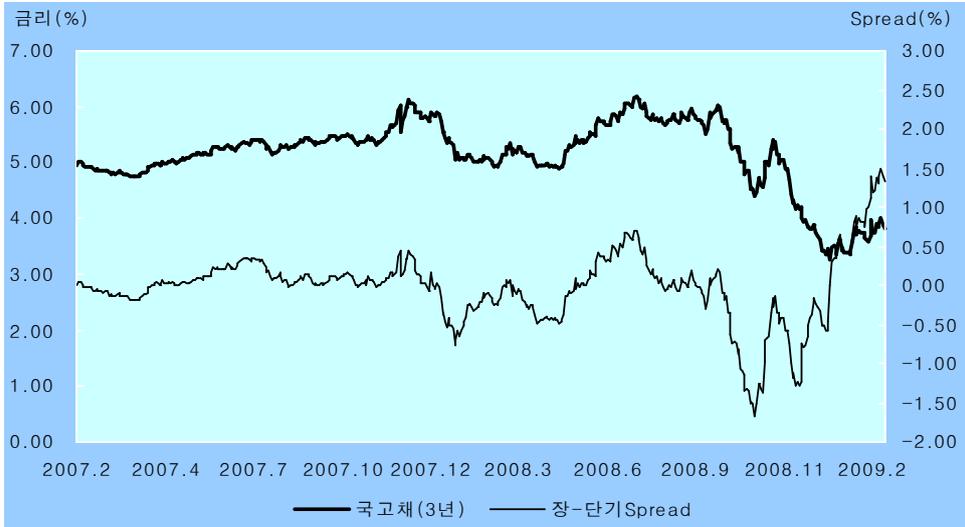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8년	2008년			2009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월	
	가계대출 ¹⁾	25.0	1.4	1.8	1.6	-1.7	2.8	386.8	389.7
주택담보대출 ²⁾	18.1	1.0	1.8	2.3	1.8	3.3	241.5	244.8	1.37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6.8	0.4	0.1	-0.8	-3.2	-0.3	143.6	143.3	-0.21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1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06조 5,870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 9,676억원(0.4%) 증가
- 1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98조 1,09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조 9,246억원 (1.2%)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전월대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액	증감률
전국	예금은행	815,649.10	913,084.4	920,259.6	917,110.1	921,674.4	4,564.3	0.50
	비은행기관	257,924.60	285,738.4	286,214.6	284,509.3	284,912.6	403.3	0.14
	합계	1,073,573.70	1,198,822.8	1,206,474.2	1,201,619.4	1,206,587.0	4,967.6	0.41
서울	예금은행	350,225.90	405,074.2	408,252.2	406,595.4	410,284.8	3,689.4	0.91
	비은행기관	81,683.00	89,495.9	89,060.1	85,589.5	87,824.7	2,235.2	2.61
	합계	431,908.90	494,570.1	497,312.3	492,184.9	498,109.5	5,924.6	1.20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1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세 지속

- 서울의 1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작년 12월보다 1.2%p 증가한 63.1%를 기록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작년 12월(88.2%)에 큰 폭 상승한데 이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보다 1.3%p 상승하여 89.5%를 나타내고 있음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86.9	87.6	87.6	88.2	89.5	1.3
서울	58.6	61.4	61.5	61.9	63.1	1.2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업·동·향 |

1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감소

- 1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3,664개로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및 명절효과(2008년 구정 2월)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30.8%(1,634개) 감소하였으며, 전월비로도 3.5%(133개) 감소

■ 서울 전월대비 신설법인 감소

- 1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195개로 전년동월대비 36.3%(680개)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10.0%(133개) 감소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크게 감소

- 지난달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 수가 증가하였으나, 1월에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2개(1.0%)증가, 건설 및 설비업이 4개(6.8%)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138개(12.8%) 크게 감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5,298	3,975	3,331	3,797	3,664	-133	-3.5	-1,634	-30.8
서울	1,875	1,425	1,146	1,328	1,195	-133	-10.0	-680	-36.3
서비스업	1,570	1,184	965	1,075	937	-138	-12.8	-633	-40.3
제조업	127	160	130	191	193	2	1.0	66	52.0
건설 및 설비업	177	81	51	59	63	4	6.8	-114	-64.4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1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4%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62개로, 전월(345개)보다 24.1%(83개) 감소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104개로 전월(120개)보다 13.3%(16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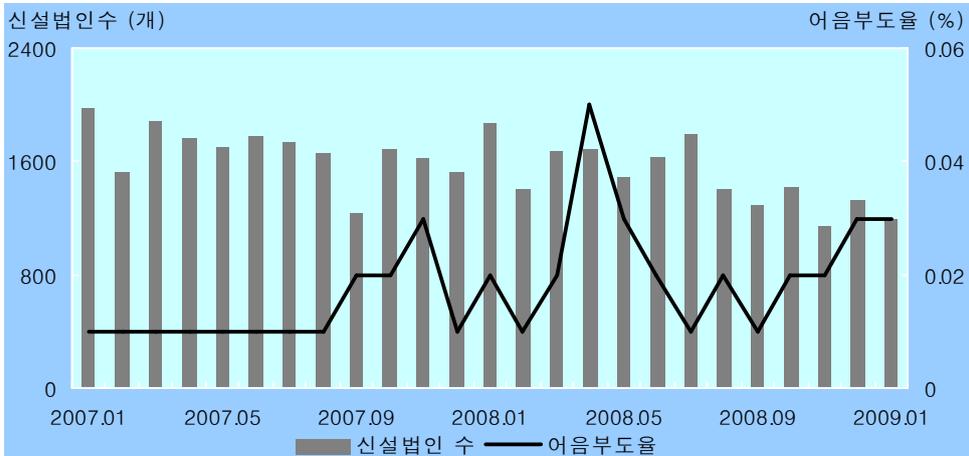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3	0.03	0.04	0	0.0	0	33.3	
	부도업체 수	193	321	297	345	262	-83	-24.1	69	35.8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2	0.02	0.03	0.03	0	0.0	0	50.0
	부도업체 수	67	111	91	120	104	-16	-13.3	37	55.2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신용보증 공급건수 및 공급금액 대폭 증가

■ 기업체별 평균 지원금액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2월중 4,749건, 99,315백만원 공급하여 전월 대비 건수는 103.3%, 금액은 121.8%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건수 기준 383.1%, 금액 기준 208.3%의 두드러진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 이는 2009년 1월말 「2009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그간 미진행되었던 신용보증 접수건들 발급되었으며, 또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통한 금융지원을 받고자하는 신청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8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983	3,971	3,888	3,679	2,336	4,749	2,413	103.3	3,766	383.1	
금액	32,211	71,069	63,816	63,648	44,774	99,315	54,541	121.8	67,104	208.3	
건당평균금액	32.8	17.9	16.4	17.3	19.2	20.9	1.7	8.9	-11.9	-36.3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음식·숙박업 현저한 증가세, 도·소매업 4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2월 업종별 신용보증 변동 현황 산정 결과, 음식·숙박업은 전월 대비 건수 기준 3%, 금액 기준 1.8% 증가율을 보였으며, 도·소매업의 경우 4개월 연속 상승률 보임
- 전체 업종 중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및 금액 기준 모두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수경제 침체에 따라 경기에 민감한 음식·숙박업 및 도·소매업이 자금난 극복을 위해 신용보증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415	1,841	1,034	952	507	4,749
비율	8.7	38.8	21.8	20	10.7	100
금액	10,498	38,737	19,844	19,249	10,987	99,315
비율	10.6	39	20	19.4	11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체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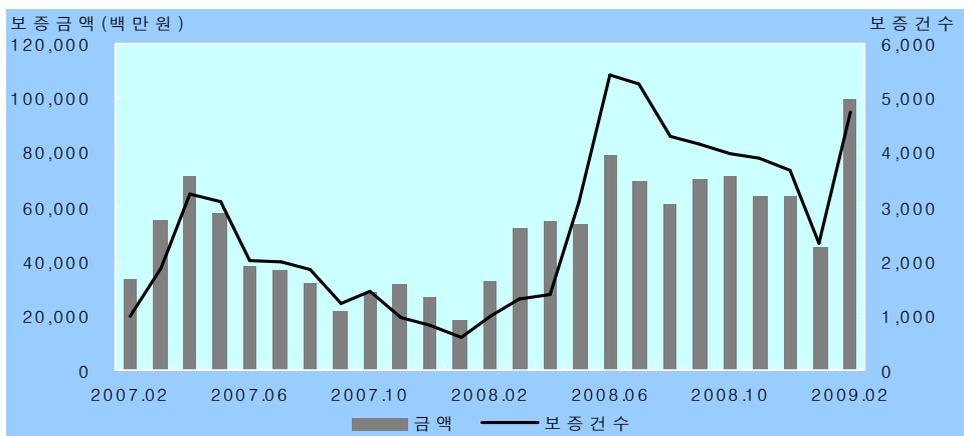
- 정부의 신용보증 공급확대 방안 정책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지원 활성화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단의 주요 지원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등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규모 역시 당초 목표 공급 금액보다 대폭 증가한 바, 이들 기업군에 대한 지원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8.12	2009.01	2009.02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3,527	2,243	4,551	2,308
	비율	95.9	96.0	95.8	-0.2
	금액	57,149	39,255	89,629	50,374
	비율	89.8	87.7	90.3	2.6
소기업	건수	107	72	161	89
	비율	2.9	3.1	3.4	0.3
	금액	4,713	3,624	7,854	4,230
	비율	7.4	8.1	7.9	-0.2
중기업	건수	45	21	37	16
	비율	1.2	0.9	0.8	-0.1
	금액	1,787	1,895	1,835	-60
	비율	2.8	4.2	1.8	-2.4
합계	건수	3,679	2,336	4,749	2,413
	비율	100	100	100	0
	금액	63,648	44,774	99,315	54,541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전국 무역수지 지난달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로 전환
 - 2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3% 감소한 254.6억달러, 수입은 30.9% 감소한 225.3억달러를 기록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29.3억달러 흑자를 달성. 지난달 36.3억달러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로 전환. 향후에도 수출감소세 둔화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예상
- 전국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선박류금의 수출증가와 전월대비 수출감소율 상승 등으로 지난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07년 6월이후 최고 흑자 기록
 - 선박류의 지속적인 수출증가,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달보다 수출액이 증가
 - 유가원자재 하락 및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등으로 지난달보다 수입액이 감소한 것이 무역수지 흑자로 연결
- 서울의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2월 서울의 수출은 22.4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3.3% 감소하였고, 수입은 51.5억달러로 20.3% 감소
 - 서울의 수출과 수입은 세계경기침체 및 소비수요 급감으로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의 감소세 지속
- 2월 기준 수출 1순위는 금은 및 백금,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금은 및 백금이 169,207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무선통신기기, 편직물, 컴퓨터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503,421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컴퓨터, 석유제품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금은 및 백금이고, 수입의 경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으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1,178	37,370	29,015	27,118	21,368	25,458	-5,720	-18.3	4,090	19.1
	수입	32,624	36,158	28,877	26,576	24,724	22,529	-10,095	-30.9	-2,195	-8.9
서울	수출	2,913	2,916	2,368	2,287	1,991	2,235	-678	-23.3	244	12.3
	수입	6,458	7,465	5,588	5,469	5,050	5,149	-1,309	-20.3	99	2.0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2월		2009년 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금은및백금	5,577	368	169,207	2933.9
2	무선통신기기	223,786	168.3	144,453	-35.5
3	편직물	146,361	-9.9	136,372	-6.8
4	컴퓨터	74,606	-13.6	102,537	37.4
5	반도체	153,717	-26.4	100,529	-34.6
6	자동차부품	120,893	21.2	95,323	-21.2
7	고무제품	112,680	5.2	88,964	-21
8	합성수지	101,567	-0.9	88,004	-13.4
9	자동차	51,537	-12.4	73,179	42
10	의류	72,617	-21.7	68,225	-6
	합계	2,912,584	59.6	2,234,602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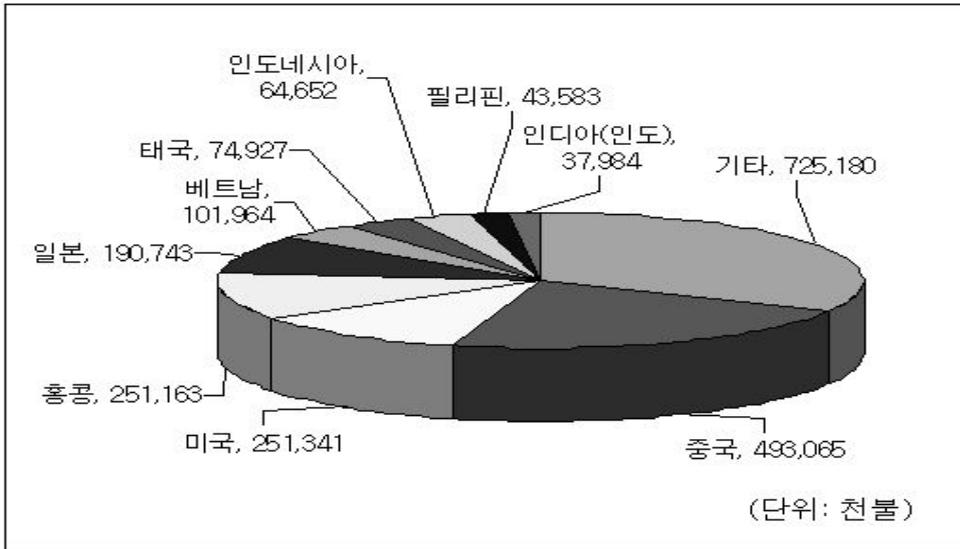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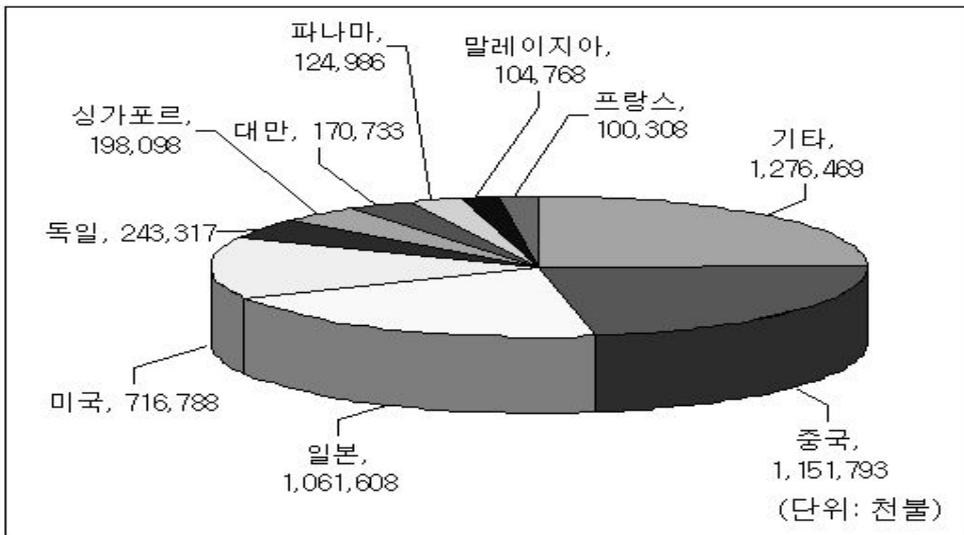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2월		2009년 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691,584	73	503,421	-27.2
2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82,086	-53.3	351,967	328.8
3	컴퓨터	457,755	-22.5	343,678	-24.9
4	석유제품	150,965	10.5	185,227	22.7
5	의류	222,333	-0.3	160,726	-27.7
6	항공기및부품	52,311	-86.6	126,139	141.1
7	플라스틱제품	75,532	1.8	124,491	64.8
8	농약및의약품	131,264	19.1	123,069	-6.2
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7,509	90.3	109,233	61.8
10	무선통신기기	117,308	25.8	102,532	-12.6
	합계	6,457,611	34.8	5,148,868	-20.3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